

# 해외의약뉴스

## 2개의 일반적인 체중감량 수술을 비교한 연구

### 개요

위 밴드술과 위 우회술 모두 각각 그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자는 말한다.

### 키워드

체중 감량 수술, 위 밴드술, 위 우회술

체중 감량 수술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 2가지를 비교하자면, 복강경에 의한 위 우회술이 조절형 위 밴드술 보다 환자에게 과도한 체중을 줄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만, 단기 합병증 및 장기 입원의 위험은 더 높다고 밝혀졌다.

국립 보건원에 따르면, 위 우회술은 위장을 작게 만들고 소장으로 우회시키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당신이 먹은 음식의 모든 칼로리를 흡수하지 않도록 만든다. 위 밴드술은 위장을 작게 만들기 위해 위 상단 주위에 조절 가능한 밴드를 배치하는 체중 감량 수술 유형이다.

두 가지 체중 감량 수술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이전의 연구들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생산해왔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복강경 위 우회술을 받은 5,800명 이상의 환자와 위 밴드술을 받은 1,200여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복강경 위 우회술을 받은 환자가 위 밴드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거의 두 배로 체중이 감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밴드술에 대비해 위 우회술에서 더 많은 합병증이 있었다. 수술 후 1개월 이내의 합병증 발생률이 위 밴드술 환자는 1.3%인데 비해, 위 우회술 환자는 3%가 하나 이상의 주요한 합병증을 경험했다고 연구는 밝혔다.

장기적인 추적 관찰 결과로 위 밴드술 환자의 0.2%가 죽었고, 약 12%가 재입원하였으며, 약 14%가 하나 이상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위 우회술 환자의 0.3%가 죽었고, 약 20%가 재입원 하였으며, 5.5%는 또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10개 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밴드술]과 [위 우회술]에 의한 장·단기 건강상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시애틀 그룹 헬스 리서치 연구소의 David Arterburn 박사가 이끄는 팀이 기술했다. "심각한 비만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차이를 잘 안내 받아

야합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 연구는 10월 29일 온라인으로 저널 JAMA Surgery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중요하지만 이미 구식일 수 있다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이 연구가 시작된 이후, 수술의 선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문서상에는 밴드술 및 우회술이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수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밴드술은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뉴욕 레녹스 힐 병원의 비만 외과장 Mitchell Roslin 박사는 말했다.

"그 방식이 절정이었을 때, 모든 비만 수술의 4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 수가 20%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체중 감소량이 더 적다는 점과 연간 5%에 이르는 [나중에 위밴드에 대한] 높은 제거율 때문입니다."라고 Roslin은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수직 위소매절제술이라는 수술이 가장 인기 있는 주요 수술로 위 우회술을 돌파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위소매절제술은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이다.

Roslin에 따르면, "상당한 누적연구의 주요 문제는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보고될 때까지 현장에서는 성장과 희망적인 진보를 계속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적정 환자에게 최적의 수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환자 집단에서 보아온 것들을 확인해줍니다."라고 뉴욕 미네올라 윈드롭 대학병원 최소침습 비만외과장인 Collin Brathwaite 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이전에 보고된 재수술 및 중재 비율은 여기서 보고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에 주목해야합니다. 우리에게는 위 밴드술이 매우 잘된 환자가 있습니다. 진정한 과제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적정 환자에게 올바른 수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 원문정보 ■

[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9207.html](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9207.html)